2009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

책임연구원 김기희

2008. 12.

대전발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1. 2009 경제여건 및 고용동향

1) 경제여건

① 국가차원

○ 2008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고용사정 악화 추세가 지속

○ 2009년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내수 및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가 지속될 우려

- 경제성장률 : ('08) 3.6%내외 → ('09) 3.0%내외 (감소)
- 민간소비증가율 : ('08) 1.5%내외 → ('09) 1.0%내외 (감소)
- 설비투자 : ('08) 0.0%내외 → ('09) -2.01%내외 (감소)
- 건설투자 : ('08) -1.0%내외 → ('09) 2.0%내외 (증가)
- 소비자물가 : ('08) 4.7%내외 → ('09) 3.0%내외 (감소)
- 수출증가율 : ('08) 15%내외 → ('09) 0%내외 (감소)

○ 가계부분은 소득여건 악화, 부의 자산효과, 금융채무부담 증가 등으로 소비여력이 제약되고 소비심리도 위축되면서 민간소비 위축 전망, 다만, 유가하락 및 물가상승세의 둔화는 실질구매력을 다소 보완해주는 역할 기대

○ 기업부문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금융채무부담 증가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신규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

2009년 경제 및 고용 전망
○ 민간경제연구소는 우리경제가 침체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3%내외로 전망 ○ 수출증가세 하락, 국내 경기침체로 수입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등으로 고용사정도 악화되어 일자리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어 실업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② 대전차원

○ 2008년 2월 경기하강국면으로 반전한 이후 11월 현재 경기침체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민간소비와 수출의 둔화가 현저함.

○ 2009년 세계 및 국내경제의 동반 침체 등 대내외여건의 악화로 지역경제 여건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경제성장은 지난해 2.0%대에서 더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경제성장률 : ('08) 2.0%내외 → ('09) 2.0%내외 예상(횡보)
- 민간소비 : 2008년과 비슷한 수준 또는 완만한 회복 예상
- 건설투자 : 소폭 증가 예상
- 소비자물가 : 4.8%내외 → 3.1%내외 예상 (감소)
- 수출증가율 : 대외여건 악화로 전국과 마찬가지로 감소 예상

2) 고용동향

① 국가차원

◇ 2009년 소비,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둔화되면서 서비스업·제조업의 고용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실업률 역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것임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취업자수 증가 : ('08) 15만명 수준 → ('09) 10만명 수준 (감소)
- 실업률 : ('08) 3.2%내외 → ('09) 3.4%내외 (증가)

② 대전차원

○ '08년도 2월부터 경기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고용율 포함)의 증가와 실업자수(실업률포함)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 2009년 소비,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둔화될 것이 예상되지만, 고용사정은 대체로 2008년과 비교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실업률 : ('08) 3.6%내외 → ('09) 3.8%내외 예상 (증가)

- 실업자수 : ('08.11) 24천명 → 27천명내외 예상 (3천명 내외 증가)

※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구직포기자의 증가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비경제활동인구 증가)할 경우 실업률 및 실업자수는 예상치보다 낮아질 수 있음.

2. 대전지역 인력수요 동향

1) 구직수요 (구직자-근로자)

① 구직자의 희망고용형태별 일자리

○ 대전지역 구직자의 연령계층별 학력별 희망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 (전체) 전체적으로는 **고졸학력자의 임금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

- 전문대졸이상의 임금근로 일자리 창출도 중요

○ (연령계층 및 학력별) **장년층 고졸학력자의 임금근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함

- 청년층 고졸학력자와 장년층 전문대졸학력자 순
- **장년층과 노년층의 시간제 일자리(비정규직)** 창출도 중요

< 표 1 > 대전지역 구직자의 연령계층별 학력별 희망고용형태 (2007)

(단위 : 천명)

연령계층	학력	총 수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시간제	전일제	
전 체	전체	45	38	11	27	7
	중졸이하	7	5	3	3	1
	고졸	25	22	7	16	3
	전문대졸이상	14	11	1	9	3
청년층 (15~29세)	전체	15	14	2	12	1
	중졸이하	0	0	0	0	0
	고졸	9	9	2	7	1
	전문대졸이상	6	5	0	5	1
장년층 (30~59세)	전체	29	23	9	15	5
	중졸이하	6	5	2	3	1
	고졸	15	13	5	9	2
	전문대졸이상	8	6	2	5	2
노년층 (60세이상)	전체	2	2	1	1	0
	중졸이하	1	1	1	1	0
	고졸	1	1	1	0	0
	전문대졸이상	0	0	0	0	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② 구직자의 희망임금수준별 일자리

○ 대전지역 구직자의 연령계층별 학력별 희망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 (학력별) 학력별로는 **고졸학력자의 100~200만원수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

- 100~200만원 수준의 전문대졸 이상학력자와 **100만원 미만의 고졸학력자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

○ (연령계층 및 학력별) **100~200만원 수준의 장년층 고졸학력자의 임금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

- 100~200만원 수준 고졸학력 청년층 일자리
- 가족부양 의무를 가진 **고졸 및 전문대졸이상 장년층의 200~300만원 일자리**
- **100만원 미만의 장년층 과 청년층의 일자리** 도 각각 중요함.

< 표 2 > 대전지역 구직자의 연령계층별 학력별 희망임금수준 (2007)

(단위 : 천명)

연령 계층	학력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전 체	전체	10	24	9	1	0	1
	중졸이하	2	3	2	0	0	0
	고졸	7	14	3	1	0	0
	전문대졸이상	1	7	4	0	0	0
청년층 (15~29세)	전체	3	9	4	0	0	0
	중졸이하	0	0	0	0	0	0
	고졸	3	5	1	0	0	0
	전문대졸이상	0	4	2	0	0	0
장년층 (30~59세)	전체	6	15	6	1	0	1
	중졸이하	0	3	1	0	0	0
	고졸	4	9	3	1	0	0
	전문대졸이상	1	4	3	0	0	0
노년층 (65세이상)	전체	1	0	0	0	0	0
	중졸이하	1	0	0	0	0	0
	고졸	1	0	0	0	0	0
	전문대졸이상	0	0	0	0	0	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③ 청년층 일자리 수요

○ 대전지역 청년층 노동시장의 초과공급상태(2008)

- 4년제대학 졸업자 미취업률 28.6%, 미취업자 3,809명
- 전문대학 졸업자 미취업률 9.6%, 미취업자 839명

○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인력충원계획 업체에 취업알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

- 대전지역 대학졸업자가 대전지역에 취업하는 비중(2008)
  - ► 4년제 대학 48.5%, 전문대학 60.1%
- 대전지역 취업비중을 고려하면, 총 2,351명 취업 알선 필요
  - ► 대졸 미취업자 취업알선 필요인력 : 1,847명
  - ► 전문대졸 미취업자 취업알선 필요인력 : 504명

< 표 3 > 대전지역 대학 졸업자수와 미취업률

(단위 : 명, %)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미취업자	미취업률	졸업자	미취업자	미취업률
2004	15,732	5,627	35.8	9,368	1,908	20.4
2005	16,019	4,574	28.6	9,693	1,330	13.7
2006	16,287	4,517	27.7	9,623	912	9.5
2007	13,143	3,888	29.6	9,058	806	8.9
2008	13,315	3,809	28.6	8,761	839	9.6

2) 구인수요 (구직자-기업)

① 산업별 구인수요

○ 2008년도 상반기 대전지역 산업별 구인수요를 분석한 결과,

○ 부족인원이 많은 산업부분에 채용계획인원도 많음

- 총부족인원 3,528명, 채용계획인원 3,539명

○ 부족인원이 많고,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산업분야

- **운수업** (부족인원 858명, **채용계획인원 723명**)
- **사업서비스업**(640, **684명**), **제조업**(556, **678명**)
-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552, 612명)
- 기타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순임

< 표 4 > 대전지역 산업별 구인수요 현황 (2008년 상반기)

(단위 : 명)

산 업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 인원	부족률	채용계 획인원
전산업(5인이상)	190,854	15,620	12,989	2,631	3,528	1.8	3,539
광업,제조업	35,813	1,940	1,498	442	556	1.5	678
전기,가스,수도사업	1,882	116	115	1	7	0.4	7
건설업	14,981	852	724	128	194	1.3	149
도매,소매업	18,170	1,139	1,017	122	93	0.5	121
숙박,음식점업	5,396	636	484	152	226	4	227
운수업	13,571	1,325	417	908	858	5.9	723
통신업	2,323	64	56	8	10	0.4	10
금융,보험업	10,522	240	224	16	33	0.3	33
부동산,임대업	7,199	371	361	10	26	0.4	27
사업서비스업	36,937	4,800	4,439	361	640	1.7	684
교육서비스업	17,734	1,653	1,500	153	188	1	200
보건,사회복지산업	16,376	1,959	1,710	249	552	3.3	612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	2,788	80	77	3	28	1	9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7,163	444	366	78	119	1.6	61

주 : 5인이상 사업체
자료 : 노동부,「인력수요동향조사」

② 직종별 구인수요

○ 2008년도 상반기 대전지역 직종별 구인수요를 분석한 결과,

○ 200명 이상 인력이 부족하고 채용계획이 있는 직종
- **운전·운송**관련직(부족인원 875명, 채용계획인원 732명)
- **경영·회계·사무**관련직(459명, 457명), **보건·의료**관련직(260명, 361명)
- **음식서비스**관련직(288명, 277명), **정보통신**관련직(155명, 224명)

○ 100명 이상 인력이 부족하고 채용계획이 있는 직종
-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191명, 196명)
- **전기·전자**관련직(155명, 180명), **기계**관련직(133명, 157명)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생산**단순직(163명, 171명)
- **사회복지·종교**관련직(163명, 148명), **영업·판매**관련직(124명, 132명)
- **화학**관련직(83명, 101명)

< 표 5 > 대전지역 직종별 구인수요 현황 (2008년 상반기)

(단위 : 명)

직 종	현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 인원	부족률	채용계 획인원
전직종	190,854	15,620	12,989	2,631	3,528	1.8	3,539
관리직	3,069	37	34	3	6	0.2	6
경영,회계,사무관련직	40,482	2,666	2,277	389	459	1.1	497
금융,보험관련직	7,966	194	182	11	25	0.3	25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9,196	1,780	1,598	182	191	1	196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607	4	4	0	0	0	0
보건,의료 관련직	11,178	1,462	1,266	196	260	2.3	361
사회복지,종교관련직	3,484	305	305	0	163	4.5	148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1,880	138	106	32	90	4.6	92
운전,운송관련직	10,901	1,652	718	934	875	7.4	732
영업,판매관련직	14,669	678	565	114	124	0.8	132
경비,청소관련직	11,506	1,452	1,433	19	118	1	38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1,838	97	53	44	14	0.8	18
음식서비스관련직	5,984	767	627	140	288	4.6	277
건설관련직	8,765	716	627	89	120	1.3	77
기계관련직	9,882	634	552	82	133	1.3	157
재료관련직	3,739	245	187	57	61	1.6	63
화학관련직	7,270	242	207	35	83	1.1	101
섬유·의복관련직	1,441	46	35	11	27	1.8	27
전기·전자관련직	9,650	1,574	1,475	99	155	1.6	180
정보통신관련직	8,080	472	357	116	155	1.9	224
식품가공관련직	2,394	84	79	5	15	0.6	15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생산단순직	6,686	371	299	72	163	2.4	171
농림어업관련직	187	4	4	0	3	1.8	0

자료 : 노동부, 「인력수요동향조사」

③ 정책적 시사점

○ 위의 분석결과, 산업별 직종별 채용계획인원 요약

- 운수업분야 : 운전·운송관련직 (723명)
- 사업서비스분야 :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196명),
  정보통신관련직(224명)
- 제조업분야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생산단순직(171명),
  전기·전자관련직(180명), 기계관련직(157명),
  화학관련직(101명)
- 보건·사회복지사업 : 보건·의료관련직(224명),
  사회복지·종교관련직(148명)
- 숙박·음식점업 : 음식서비스관련직(277명)
- 전산업 : 경영·회계·사무관련직(457명), 영업·판매관련직(132명)
- 기타 :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분야 관련직(612명),

건설업분야 관련직(149명), 도매·소매업분야 관련직(121명)

○ (정책적 시사점) 산업별 직종별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을 고려하여
- 구인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공급 필요
- 구인자와 구직자간 **취업정보망** 연결을 통한 **미스매치 해결** 노력 필요

3. 대전지역 일자리 만들기 대책

1) 지역노동정책 기본방향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 취약계층 취업 촉진 등 사회안정망 강화
○ 기업의 고용안정조치 지원
○ 실업자에 대한 생계유지 및 직업훈련 등에 재정투입 확대
○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 노동시장 위기관리 TF 구성
⇔ 예산 조기집행

2) 핵심과제

○ 구인·구직자 미스매치 해소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경기침체에 따라 양산될 실업자 대책
○ 청년층 실업 완화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 공통과제 : 맞춤형 교육훈련
○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3) 핵심과제별 대책

(1) 구인·구직자 미스매치 해소

① 구인·구직자 취업알선

○ 일자리 창출의 절대적 수치가 아닌 실제 구인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 : 총 3,500여명 (대졸 미취업자 취업알선은 일자리 창출이 아님)

- 구인·구직 인력수급동향 파악을 통한 산업별 직종별 시급한 우선순위별 일자리 창출 : 3,500여명
  → 실업자 해소 및 실업률 완화에 효과적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 운수업분야 : 운전·운송관련직 (723명)
- 사업서비스분야 :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196명), 정보통신관련직(224명)
- 제조업분야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생산단순직(171명), 전기·전자관련직(180명), 기계관련직(157명), 화학관련직(101명)
- 보건·사회복지사업 : 보건·의료관련직(224명), 사회복지·종교관련직(148명)
- 숙박·음식점업 : 음식서비스관련직(277명)
- 전산업 : 경영·회계·사무관련직(457명), 영업·판매관련직(132명)
- 기타 :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업분야 관련직(612명), 건설업분야 관련직(149명), 도매·소매업분야 관련직(121명)

○ 구인업체 인력수요정보 파악을 위한 실사조사(매년)

- 노동부「인력수요동향조사」원자료 구입
- 기업체 실사조사를 통한 충원계획 인력 조사

⇒ 대학과 연계한 취업알선 지원,

○ 구인업체에 대한 인력수요 파악 시스템 구축

- 기존 워크넷을 보완하는 등 구인업체의 산업별, 직종별, 수준(경력,기술)별 구체적 구인정보 파악 위한 상시 시스템 구축
  → 구직자에게 구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창출)
- 대학-기업(구인자)-구직자 간 연계 기능 강화

○ 정확한 실업통계 생산
- 정확한 실업 통계를 바탕으로 일자리 대책 타겟을 분명히 하여 보다 정교한 일자리 마련 필요

(2)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라 양산될 지역산업 특성별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함
- 서비스업분야 생계형 자영업주, 일용근로자(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업종 및 개선서비스업종), 여성·노인·청년층계층, 가족부양의무 해고·퇴직 근로자 등

○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창출된 기존 일자리 지속 유지
-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계속사업 : 18,500명

○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서비스 지원
- 청년 인턴제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취약청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노인일자리 분야 : 노인요양·재가시설 대상 노인일자리 확충
- 보육 분야 : 공공립 보육시설·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 보건의료분야 : 지역거점 공공병원, 도시형 보건지소, 간호사 및 간병인 확충 (사회적 기업 육성)
- 주민생활서비스 분야 : 공무원, 환경미화원 확충
- 활동보조분야 :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 취업상담 : 취업·고용 상담 → 체계적인 고용시스템 구축

(3) 경기침체에 따라 양산될 실업자 대책

○ 경기침체에 민감한 영세 자영업주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육성
- 소생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자금지원
- 퇴출 소상공인 : 업종전환 교육·훈련 및 컨설팅(소상공업 지속자)
  정규·비정규 일자리 취업 알선(고용근로자)

○ 경기침체에 따라 도산·폐업위기에 직면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
- 유동성 지원(경영안정자금 등) 통한 고용안정 : 2,000억원

○ 경영악화로 인력구조조정에 직면한 중소기업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30억

○ 소상공인 정책자금 증액
-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 증액하고 보증 지원도 확대 (30대 자영업자 우선 지원)
-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와 음식점업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로 세금감면

○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 대한 지원
- 구직 기간 동안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 긴급 복지지원 대상은 현재는 가구주가 사망 또는 가출한 경우로 제한돼 있지만, 부상, 사고, 질병 등의 경우에도 지원

(4) 청년층 실업 완화대책

○ 추진방향
- 청년인턴제, 사회적기업가 육성 등 청년 친화적 일자리 제공
- 학교단계에서 직업진로교육 강화 및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 강화 촉진
- 저학력 실업자, 니트족 등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추진(노동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청년 인턴제 확대
- 중소기업이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뽑을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확대
- 청년인턴제를 공공부문으로도 확대해,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에 대졸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뽑도록 함.
- 공공부문 : 정원의 3% 채용(300명 / 36억 / 특별교부세 활용)
  ► 시·구, 산하기관 전기관 시행, 정부의 1%보다 3배 확대 추진
- 민간기업 : 청년인턴 임금의 50%지원 (1,000명/ 96억원 / 노동부)

○ 고용인센티브제 도입
- 2단계 RIRM 등 각종지원사업 추진시 고용평가제 도입

(17개 사업 / 438억원 / 650명)

► 첨단기술상용화, 산학연 협력사업, 첨단의료산업 육성 등 지역전략산업 선정 평가시 고용계획 및 실제 취업률을 반영해 우수 청년인력 고용확대

○ 대학생 해외취업지원 확대

- 금년 2개 대학(대덕대, 우송대) 120명 지원 ⇒ 5개 대학 300명/5억 확대

○ 지방공무원 신규채용(105명), 청년공공근로 확대(300명/24억)

○ 청년층의 직장체험기회 제공 위한 지원

- 청년층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 또는 대학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 지원

○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직업상담·적성검사 등 직업진로 설계와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직접 운영하거나 각급 학교에 프로그램 제공
  ← 정부는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실시

○ 취업애로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 위기 청소년·고졸이하 저학력자·장기 구직자 등 취업애로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직장체험·직업훈련-집중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
- 참여자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
- 대전지역 신규진입 미취업 대졸 청년층 취업 알선 : 2,300여명

  ► 대졸 미취업자 취업알선 : 1,847명

  ► 전문대졸 미취업자 취업알선 : 504명

○ 해외인턴 등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실시

- 정부는 산학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인턴·해외연수·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 시행, 민간 재정지원·우수 민간기관 우대조치·사후관리 등 중점 이행
- 대학은 외국어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등 우수한 인재 양성에 노력, 경험자를 우대하는 대책 마련 시행,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정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 기업은 해외 수요처 발굴 등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

(5)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08.12.17, 노동부 발표「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참조)

① 핵심추진과제
- 건설업의 고용구조 선진화
- 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 특화된 복지프로그램 제공

②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 (건설경기 전망)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기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다양한 국책사업이 추진될 경우 연 3~4% 성장 전망
- (인력수급 전망) 청년인력 신규 유입 부족 등으로 건설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숙련 기능인력의 부족 전망

③ 고용구조 및 근로실태
- (고용구조) 생산직의 88.4%가 임시·일용직으로 고용되는 취약한 고용구조, 하도급 생산구조에 의해 건설근로자의 80.1%는 30인 이하 영세업체에 집중
- (근로실태) 장시간·휴무일 근로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임금수준과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낮은 편, 산재발생률이 높고, 사고발생 시에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04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④ 중점추진과제

○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를 5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구 분할발주, 용

적율 인센티브제, 건설공사 하도급율 확대 등 추진

○ 건설업 고용구조 선진화
-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 개선, 불법 하도급행위 단속 강화
- 건설업체 고용관리를 전자카드 또는 EDI로 퍼리하는 경우에만 건설고용보험관리 지원금 지금
- 무분별한 외국인력 활용 방지
- 법정 근로조건 이행 정착

○ 양질의 건설기능인력 양성
- 거점 훈련기관 확충 및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구축
- 청년층 기능인력 유입 촉진
-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체계 마련
- 자격의 활용 및 현장성 강화

○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건설 취업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 일일취업센터 활성화(대전, 대구, 울산)
- 민간위탁기관 무료취업지원서비스 확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종합적인 취업·복지지원서비스 제공, 불법 직업소개소 단속 강화
- 건설사업주 단체 등 활용 구인개척사업 추진, 구인정보 통합D/B 구축, 취업지원 전문인력 교육연수 및 사기진작

○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 안전교육 이수제도(Green Card) 도입
- 설계 및 감리 시 산업안전 고려 강화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집중관리

○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 건설근로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대부사업, 장학사업, 특정질환 순회검진사업, 새벽인력시장 쉼터 설치 등)
- 퇴직공제제도 적용 확대(단계적으로 범위 확대 및 상향 조정)
-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6) 공통과제 :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 기업이 필요로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공급

- 신규대졸자가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졸 미취업상태 취업대기자가 많은 실정
  →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 필요

○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
- 현장적응 맞춤형 교육훈련

○ 재직근로자
- 재교육, 업종 및 직종 전환 근로자 및 자영업주 교육·훈련

○ 실업자
- 실업보험 수급자 대상 직업훈련 실시

(7)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투자(SOC) 사업 절차 간소화
- SOC사업(8,140억원)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조기발주를 위해 사업절차를 최대 60일 단축,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개편

○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
- 도서관 건립(송촌, 노은, 진잠), 갑천관광벨트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중구, 대덕구) 등 13건의 SOC사업 확충 (1,000명)
- 전국체전 대비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수영장 건설 등 조기추진 (1,030억 투입)

○ 도로 및 교통인프라 구축
-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 개설 공사,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등 도로 확장 및 보수(1,300명 / 360억)
- 노은역 주차장 건설, 공영차고지 조성 등 교통인프라 구축(1,000명)

○ 산업단지 토지보상금 조기지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대